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南部戰線에異常 伊軍空襲激烈!

오가덴地方의伊軍進擊奏効로 에國軍側死傷多數

【아디스아베바十日發電通】南部國境에 가까운 고라히이트로부터 當地에 達한 報道에 依하면 十日 伊太利軍은 俄然 全線에 亘하야 進擊을 開始하야 오가덴戰線에잇는 伊太利步兵의 大軍은 長驅하야 中央오가덴地方으로 向하야 行動을 이르켜 에地方의 리베리、타파라、타스、시라모等의 諸陣地는 九日 午前七時 伊太利空軍의 猛擊을 바더 에디오피아側에 만흔 死傷者를 낸 模樣이다

戰爭通信洪水 에國首都電信局은

【아디스아베바九日發聯合】伊에 紛爭勃發以來 俄然世界各國의新聞從軍記者의 메카로 化한 아디스아베바는 이제부터의 記者等으로 在留各國官民이 續續引揚하는 今日에도 不拘하고 從來보다 殷賑하나 非常時에 直面하야 國內通信은 未曾有의 膨脹이고 且外人記者의 戰爭通信洪水로 아디스아베바電信局은 晝夜兼行의 奮鬪에도 不拘코 全혀 消化不能의 狀態에 빠젓다 政府는 九日 드듸여 新聞記者電報各自一日의 打電語를 百語에 制限한다는 旨를 發表하고 更히 에디오피아政府當局은 軍의行動을 嚴秘에 附하야온 從來의方針을 改正하야 八日以後 每日公式發表를 行하는同時에 軍隊의 行動에關한情報에 關하야는 爾今 嚴重한檢閱을 加할旨를 言明하얏다

伊北軍左翼部隊 에타가함스市占領

【아디그라트十日發聯合】伊太利北軍左翼部隊는 十日 아지그라트의 東南十哩의 山岳地帶 에타가함스市를 占領하엿다

伊에兩國公使다撤歸

【羅馬九日發聯合】에디오피아代理公使에스스氏는 本國政府로부터 歸還命令을 接하고 直時 羅馬撤去를 決定하고 最近 佛國汽船으로 지부리港에 赴하기로 되엿다 伊太利政府에서도 九日 正式으로 旅券을 交附하얏스나 財産에 對하야는 保障을 拒絶하얏다 一方 伊太利政府도 九日 아디스·아베바駐箚公使 기우리치伯에게 本國歸還指令을 通達하얏다 公使는 十日아디스아베바出發 一路歸還途에 就할것으로 觀測되는데 이것으로써 伊에兩國의 外交關係는 斷絶되게 되엿다

에皇帝御離京 行方全然不明

【아디스아베바十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十日 드듸어 首都아디스아베바를 御離京하야 어대론지 行方을 감추시엇다 아마 北部戰線의 擴大에 鑑하야 親히御出陣을 御決意하신 結果라고 解釋되는데 皇帝의 御所在는 當分 嚴秘에 附하게될것으로 보인다

調整委員을任命 制裁發動準備

【주네브九日發聯合】總會幹部의 結果 伊太利代表를 除한 理事會十三個國代表 其他十一個國代表로 構成된 調整委員會가 任命되여 伊太利政府에 對한 制裁案發動에 關한 萬全의 處置를 考慮하기로 決定하엿는데 二十四人委員會의 會員은 左와如하다

▲理事會代表
佛國 蘇聯 에엔王國 西班牙 濠洲 土耳其 루마니아 波蘭 葡萄牙 丁抹 에콰돌 智利 英國

◆十一國代表
南阿聯盟邦 墺太利 波斯 유고슬라비아 췌코슬로바키아 瑞典 白耳義 베네주엘라 和蘭 希臘、瑞西、

右中 十個國代表는 모도 內諾을 與하엿스나 瑞西代表만은

總會午後繼續 알바니아代表反對?

【주네브十日發電通】聯盟總會는 午後四時半(日本時間十一日午前零時半)再開하기로 되엇다 알바니아代表는 午後의 總會에서 發言을 求하엿는데 아마 墺太利 匈牙利兩國과함께 制裁에 反對할것으로 보인다 特히 諾否를 表明하기前에 委員會의 受諾事項을 明示하여주지안흐면 안된다고 留保를附하고잇다

制裁發動압두고 英政府重大閣議

緊急議會召集도決定

【倫敦九日發聯合】英國政府는九日午前十一時부터 다우닝街十番地 首相官邸에서 定例閣議를開催하고 이든無任所相을除한 各閣僚二十二名의出席 볼드윈首相 司會下에 爲先 볼드윈首相으로부터 開會인사가 잇슨다음 호어外相으로부터 伊에紛爭의經過及 聯盟理事會의 結果等에 對하야 詳細한報告가잇고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制裁案을 發動할 境遇의 對策을 協議하엿는데 閣議決定事項은 左와如하다

一、英國政府는 어데까지 聯盟規約의 擁護를 期하야 各聯盟國과 協力하야 侵略國에對한 制裁案을 講함 制裁案은 單純한 經濟的斷行에 끈치지안코 必要에 應하야 外交的斷絶 其他斷乎한處置를不辭함 但 制裁案發動은 一切 集團的일것을 前提로하는故로 制裁案에關한 閣議決定은 모도 暫定的으로하고 聯盟總會의 裁斷을 待하야 다시 最終的으로 決定함

一、勞働黨은 情勢의 急迫에 鑑하야 緊急議會를 招集하도록 要請하엿스나 當局에서도 緊急議會開會에 何等異議가 업고 聯盟總會가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制裁案을 決定하는即時로 緊急議會를 召集할 期日은 大體로十月二十一日로함

一、볼드윈首相으로부터 勞働黨首領 아트리少佐에게 以上의 決定을 通告하고 다시 에디오피아政府에 對하야 武器輸出禁止를 解除하는案 及地中海의 共同作戰에 關한 佛國政府의提示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하고 閣議는 前後二時間五分後 散會하엿스나 午後三時 다시 外務陸海空四相을 爲始하야 重要閣僚會議를 開催하고 午前閣議決定諸項에 對하야 다시 細目的檢討를 行하기로 되엿다

海軍軍縮會議 伊參加를通告

【倫敦九日發電通】그란디伊太使는 九日 英國外務省에 對하야 伊太利政府는 華府海軍條約의 規定에 따라 今年內에 招集할 海軍軍縮會議에는 欣然 參加할 意思가 잇다는것을 正式으로 通告하엿다

質的制限에局限 新協定達成企圖

海軍縮少本會議年內에開催次 英政府畫策에腐心

【倫敦九日發聯合】英國政府는華府 倫敦兩海軍條約의 明文에基하야 一九三五年度內에 海軍縮少本會議를 招請할 意向으로 各國政府와 外交折衝을 逐하고 잇는데 四圍의 情勢에鑑하야 本會議를年內에 招請하지 못할境遇에는 協定範圍를 質的制限에 限하고 海軍縮少會議를 招請하야 新協定의 達成을 圖할方針이라고 解釋된다

帝政派壓迫으로 希臘內閣總辭職

【아덴네十日發電通】希臘政府內의 帝政卽時實施派와 共和派의 軋轢은 最近漸次激化하야 콘게리스陸相以下隨軍有力者의 多數는 斷然帝政卽時實施를 主張하야 다리스首相에 强要한結果 首相은 軍部의要求를 容認키어렵고 그壓迫에 견딜수업서 十日總辭職을 決行하엿다

伊에戰況抄 (十月十日)

◇伊太利北軍左翼部隊는 十日아디그라트東南 十哩地點의 에타가함스市를 占領하엿다

◇南部國境(오가덴)伊太利空軍의 爆擊이激烈하야 에國軍側에 死傷者가 多數히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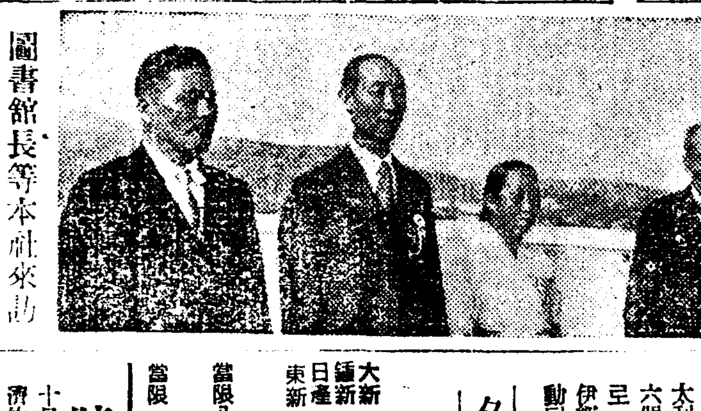
◇에國皇帝는 十日首都를 떠낫는대 皇帝의 御所在는 當分間嚴秘에 附하리라한다

◇十日午前 聯盟總會의結果 伊太利를 侵略國으로 指目적은 六個國委員會報書가 全會一致로 承認케되엿스므로 이에對伊經濟的制裁는 自動的으로 發動되게되엿다

메멜地方의 總選擧結果公表

【코브노九日發聯合】메멜議會選擧結果는 九日에 公表되엿는데 獨逸人이 獲得한 議席數는 二十四議席으로 從來와 變함이업시 多數를 占하고잇스나 메멜自治領의 根本的改革 리트와니아行政長官의 放逐을 期하는 나치스 一派의 計畫은全然 失敗에 歸하엿다 開票成績은 左와如함

나치스系 百五十五萬二千票 議席 二四
리트와니아系 三十六萬三千票 議席 五
總數 百九十一萬五千票 議席二九



圖書館長等本社來訪
今番 圖書館長大會에 參席한 總督府圖書館長、沖繩縣圖書館長、仁貞圖書館長、同理事等은 本社를 來訪하얏는데 寫眞은 左로부터 總督府圖書館長 荻山秀雄氏 仁貞圖書館長 鄭斗鉉氏 同理事 金仁貞女史 沖繩縣圖書館長 沖旺藏氏)

一事一言

朝鮮語 — 長白山人

朝鮮語는 朝鮮人과 運命을가티할 말이다。글도 그러하다。朝鮮人이 스스로 朝鮮말과 글을 버리기前에는 이것은 不可能이다。朝鮮人은 獨特性에서 朝鮮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朝鮮말로 장사고대를 하고 혼잣말을 한다。朝鮮人이 죽어서 魂이 잇다고 하면 그도 朝鮮말을 할것이다。이러한 朝鮮말은 누구의 힘으로도 滅絶할수는 업는것이니 만일 滅絶할힘을 가진 사람이 잇다고 하면 그는 朝鮮人自體일것이다。高麗쩍까지는 몰나도 李朝에 들어서 부터 朝鮮人中에 만흔 精神病者가 發生하여서 生前에 하늘天字도 모르던 어미의 魂을 부를때에도 維歲次敢昭告于를 썻다。世宗朝에 훌륭한 朝鮮文이 發明되엇건마는 如前히 이 精神病者들은 서로 漢文으로 장교대를 하려들엇다。그러나 다행히 精神病者아닌 民衆이 잇기때문에 말과 글이 이만큼 이라도 生命을 扶持하엿다。비록 姓名、地名은 다 漢化하여 버렷다 하더라도。

金富軾이라는 우리네 中에서 으뜸가는 精神病者는 尼師今、麻立干等의 新羅의 王號가 野鄙한 土語、方言이라고 하엿다。이작자는 朝鮮을 망치기爲하야 태어난 아마 어떤怨魂이다。李朝에 들어서 崔萬理라는 精神病者는 한글撲滅을 입사앗스니 이亦 朝鮮에 怨讐를 가진 어떤 怨魂의 報復인모양이오 崔光顯라는 精神病者는 民族的傳統인 祭天이 諸侯의禮에 合하지 아니한다고 侃侃諤諤의 忠言을 아뢰엇다。

이모양으로 朝鮮에는 朝鮮의 원수되는 精神病者가 가끔 誕生하거니와 近來에도 大小金富軾、崔萬理、崔光顯의 類의 妖氣이 蔓延하는 모양이지 마는 朝鮮人唯一의 文化的遺產인 朝鮮말과 글마는 먹지못할 願果일 것을 밋는다。朝鮮人되는 者 고루미 精神을 가다듬어 제말과 글을 사랑할것이다。그것을 사랑하는 法이 무엇인가、곳 재가 반드시 쓰는것이다。

社說

府縣會議員選擧結果 — 政友會의勝利確實

一

朝서부터 開始된 府縣會議員選擧戰은 今後 數縣을 남기고 終了하라한다。七日 午後六時까지의 選擧成績은 政友 五八三、民政 五六四、國同 二二、社大 一九、無産 九、諸派 三三、中立 一三七로 大槪 分野가 明確하야젓거니와 爾餘 山口、三重、德島、静岡等 一部의 未開票區及 無投票區의 當選率을 豫想하드래도 政友 五九九、民政 五七一、國同 二九、社大 二一、無産 九、諸派 三三、中立 一四一 合計 一四〇三으로 大勢는 依然히 政友에 優勢하고 無産黨乃至反政黨關係者에 不利함을 볼수잇다。今番의 地方議會 選擧結果는 將來할 明春의 總選擧의 前奏曲이라 할만하야서 世人의 注目의 焦點이 되어잇거니와 이것으로써 미루어 본다면 亦是 選擧에 依한 政治勢力은 政黨 그中에도 政友에强한것은 알수잇다。

二

今次의 地方議會選擧에잇서서 政黨側 特히 政友會가 大勝利를 博하고 無産 其他 反政黨的 諸派가 不振한것은 多少 意外다。누구나 아는바와가티 今次의 選擧에 잇서서는 選擧肅淸이란것이 徹底히 强行되어서 이미 府縣知事 및 警察部長中 政黨色이 濃厚한이는 淘汰되엇고 選擧違反者는 極度의 嚴罰을 斷行하얏다。그러하므로 政黨的 背景을 가진 議員候補者 特히 政友會와가티 現內閣과는 協力關係를 끈흔 政黨의 候補者는 沒落狀態에 빠지고 非政黨派、無産派가 飛躍的 發展을 할것으로 생각하얏섯다。그런데 事實은 豫想과 다르게 非政黨派、無産派、파쇼派가 全然 頹廢치못하고 政府의 與黨關係에 잇는 民政黨조차 政友會의 優勢를 따르지 못하게 되엇스니 意外라 안할수 업다。

三

그러나 冷靜히 생각하면 아무리 政黨이 墮落되엇다 할지라도 選擧制度 그물건은 依然히 政黨에게 有利하게 되어잇다。制限잇는 選擧가 아니라 一般人의 投票에 依하야 選擧되는 選擧制度에 잇서서 旣成政黨이 勢力을 가질것은 當然한 理致다。新興勢力이 어떤 集團的 勢力을 가지고 그 勢力以外에는 選擧에 參加할수가업게한 나치스黨이라든지、共産黨이라든지 파씨스트黨이라든지 制限選擧를 쓴다면 別問題나 一般으로 無制限 普通選擧를 行하면 旣成政黨이 優勢할것은 定한 理致다。

四

今次 投票에 잇서서 棄權者가 만헛다는것은 注目할 現象이다。그 理由에는 첫재 政治情勢가 從來와 달라서 設使 自黨의 勢力이 强大하다 하드래도 結局 그 政策을 實現할수 업슬지니 차라리 關心을 가질 必要가 업다는 見解에서 나온 原因과 둘재 選擧肅淸이 까다로워 警察의 疑訝를 밧는것보다는 차라리 問題의 渦中에들

閑院宮殿下 今朝釜山驛御上陸

第十九、第二十兩師團對抗演習을 御參觀키爲하야 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御附武官其他를 거나리시고 下關까지 御出迎한 總督府渡邊 學務局長의 御案內로 今十日午前六時半 釜山棧橋에 御着、七時十分東萊御着、直間別莊에 入御하시엿는데 宮殿下께서는 午前中에 御休憩하신後 午後에 東萊棉作傳習所 西面習校를 御參觀하시옵고 三時三十五分 通度寺에 赴하시와 御遊覽하신後 五時東萊에 御歸還 直間別莊에 御宿泊하실터이다 그리고 殿下께서는 十一日午前七時十分 東萊御發演習地로 向하실御豫定이시다

閑院春仁王殿下

西鮮地方을 御視察中이시든 閑院宮春仁王殿下께서는 今十日午前七時半 新義州御發 同十時九分 定州驛에 御下車하시와 日露戰蹟을 御視察하시고 訓練所 農事試驗場을 御視察하신後 午後零時卄四分 定州驛御發 午後九時五十分 京城驛御着 妃殿下 御同伴 御歸京 朝鮮호텔에 入御하섯는데 殿下께서는 十一日朝 七時四十五分 御發 演習地로 向하실 御豫定이시다

竹田宮、同妃殿下

金剛山을 御探勝하신 竹田宮恒德王 同妃兩殿下께서는 明十一日午前六時四十五分 京城驛御着 御歸京하실터인데 宮殿下께서는 同七時十五分 御發 演習地로向하시고 妃殿下께서는 朝鮮호텔에 入하실 御豫定이시다

新嘗祭獻上穀 納受式擧行

新嘗祭의 獻上穀納受式은 十日午前十一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嚴肅히 擧行하엿다 耕作者는 稻는 今野耕一氏(水原)가 京畿道 山本農務課長 大河內水原郡守 藤田水原署長과 粟은 孔灘氏(春川)가 江原道 國見農務課長 瀧澤春川郡守 成見春川署長과 同伴하야 式場正面의 獻案에 御新穀을 捧安하고 宇垣總督에게 進獻을 乞하는 目錄을 遞한後 總督은 이것을 納受하야 口頭로 進獻의 告辭를 다음과가티 述하고 式을 閉하엿다 그리고 供御의 新穀은 一兩日中에 總督府職員이 捧持하고 渡東獻上의 手續을 取할터이다

初等敎育擴充案檢討

二年制의簡易學校 基礎的敎育機關으론不足

(下) 金麟伊

이번에 決定한 第二初等敎育擴充案에잇서서 普通學校의 設立計劃外에 簡易學校의 十年間增設計劃이잇다 簡易學校는 昨年에 비로소 創設된것이다 普通學校의收容難을緩和하며 農村의 文盲退治를 目的으로 普通學校所在地에서 遼隔한 村落에 設立한 修業年限二個年의 學校이다 昨年에 一郡二校식 合計四百四十校를 設立하고 今年에二百二十校를 設立하야 旣設校가 六百六十校로 其兒童數는 五萬三千餘名이다 다시 明年에도二百二十校를 新設할 計畫이잇고 또 來明度부터는 十年間에 二千二百校를 設立할計畫이 잇슴으로 結局 十一年後에는 總數는 三千八十校에 達하며 收容兒童數도 三十萬八千名을 算하게될터임으로 現在와가튼 貧弱한 朝鮮敎育狀態에 鑑하야 普通學校不足의 補充的任務와 文盲退治의 役割을 相當히 할것으로 設立當初의 趣旨로 보면 매우 조흔 施設임에 틀림업다 그러나 昨年에 創設할 當時의 總督府當局의 意圖는 初等敎育難의 補充과 文盲退治的 役割을 目的으로 計畫하야 新設하엿섯는데 今般의 初等敎育調查會에서는 이것을 人民의 基本敎育 擴充案의 하나로 決定하야 增設計劃을 세웟다 勿論이러한 敎育機關이라도 農村에잇는것이 업는것보다 나흘것은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事實은 二年制의 普通學校가 새로 생긴것과 마찬가지다 普通學校는 六年制가 原則이고 現在와가티農村學校는 全部四年制가 되어잇는것은 例外로 이것은 一面一校 設立計劃自體가 學校內容은 엇잿든 左右間 一面에 一校식만 세우자는 것이 目的이고 따라서이計劃當時의 非常히 熾烈한 敎育熱의 解消와 敎育難의 緩和를圖謀한것이니만치 極히杜撰한 計劃인것도 否定할수 업는事實이엇다 勿論 이것은 初期擴充時代의 過渡的 計劃의 杜撰으로 容認한다하더라도 이번擴充計劃에잇서서 四年制의 普通學校보다 더 低級한짐말 너무 簡易한 二年制의 學校를 十年間이나 繼續하야 增設한다는것은 이번 普校擴充計劃自體의 內容이 事實은 貧弱하야 보잘것업다는것을 反證하는것 밧게 안된다 簡易學校를 設立하는代身에 한거름더 勇氣를 내어 普通學校를 그만치 더增設하게하엿스면如何요 要컨대 簡易學校를 一時 過渡的 敎育機關으로만 히 세워서 文盲을 急速度로退治하는것은 贊成이나 이때문에 基礎的敎育機關의 增設이 犧牲되며 따라서 義務敎育實施에對한 準備가 遲延된다면 吾人은 贊成할수가 업다、

普通學校를 一年에 一千學級式 十年間增設한다하지만 十三道로分配하여보면 平均 七十七學級未滿에 不過하니 繼續事業으로의 增設計劃이 업더라도每年各道에서 當然히 增設할 自然增加의分量을 考慮한다면 上述한 年一千學級의 增設計劃이라는것은 그다지 큰 計劃도 아닌것을 알수가잇다

現在의 普通學校는 都市와 其隣接地의學校가 六年制인外에는 農村學校는 擧皆 四年制의學校이다 六年制의普通學校가 根本目標로되어 잇는以上 아모리 敎授方法을 고치고 速成式으로 集約的 敎授를 한다하여도 六年修學만 못할것은 事實인데 修身國語 算術 實業等의四五科目을簡易하게 二年間 修業케하는 二年制의 普通學校라는것은 事實上 文盲退治의目的을 達成할수 잇슬지언정 決斷코 人民의 基礎敎育인 初等敎育의 完成을 期待할수는 업는學校이다

上述한바와가치 第二次初等敎育擴充案은 첫재로 義務敎育實施를 너무나 먼將來로 미루어노코 義務敎育實施直前의 準備擴充案이 아닌것과 따라서 둘재로、年一千學級의 增設計劃이라는것은 各道의平時의 自然學級增設分을 除外하고 보면 計畫案의 規模가 적다는것이다 또 셋재로는 文盲退治를 目的한 過渡的敎育機關인 簡易學校를 事實上은 二年制의 새普通學校化하야 二年制 四年制 五年制 六年制의 各種普通學校를 濫設하야 朝鮮初等敎育을 混亂케할 念慮가 잇게한 三大欠陷을 指摘할수잇다。그러므로 當局에서 이案을 再三考慮하며 檢討하는同時에 朝鮮社會의 現狀을 現象形態만을 보지말고 實質的把握을하야 民心의 動向을 諒察하야、朝鮮初等敎育의 根本問題인 義務敎育의 實施를 目標로、그最後的準備段階로서의 大擴充案으로 斷然 修正할 勇氣를 내어주기를 要望하고 擱筆한다。(終)

夕刊後市況 十日

◆大阪 短期 遞配◆
大新 九六七〇 (一〇高)
鐘新 一二八〇〇 (二〇高)
日產 八二八〇 (一〇低)
東新 一五八〇〇 (不變)

◆橫濱 生系 後引◆
當限 八七〇〇〇 先限 八六五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六五〇 先限 六八四〇

號外發行

十日午前聯盟總會結果 對伊經濟的制裁의 自動的發動에關한 不再錄號外를 十一日曉에 發行하엿습니다

大阪着名問屋案內

鷹印 作業服 カタログ送呈
卸問屋
工場用 各作業服 コール天ズボン ジャンバー 其他各種
大阪天王寺區東平野町二ノ三四 宇鷹一夫商店 電話天王寺一九七七番 振替大阪一四〇〇九番

織物雜貨 仕入案內送呈
大阪市本町四丁目 株式會社 前田光商店

雜貨現金問屋
ハンカチーフ、ガーゼ製品 エプロン、カッポ服、小供服 レース、靴下、各種 (カタログ進呈)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丁目 堀野玄三商店 電話船場四壹七九 振替大阪五一七七

生地見本送呈 作業服
羅紗洋服オーバ 朝鮮向オーバ、青年團服、各種コール天服
大阪市東區谷町三丁目 卸問屋 吉田由商店

玩具仕入는 一次當店에
百般敎育玩具卸問屋 新品在庫品豊富
大阪市東區住吉町五十五番地 大阪百貨卸問屋協會 會員 角木商店 電話東一五八二 振替大阪五九六九〇番
(型錄進呈要二錢)

不可飮
루이마치스·神經痛 데인데·傷處·打撲傷
主治効能 데인데、베인데、打撲傷、루이마치스、神經痛、痛風、肩胛痛、凍傷、말은옴、무좀、鰯瘡、害虫의刺傷
本舖 大阪市高麗橋詰町 福井對酬堂 振替大阪四九九番
全國各藥店에잇습니다

バンド 眼鏡袋 物
製造卸問屋 島田市商店 大阪市浪速區河原町千日前 (商報送呈) 電話戎三九八六 振替大阪六四八二〇

日滿號에限한 金切鋸짜은
一世界的力久耐
諸機械工具製作所 八木機械工具店 (カタログ呈) 大阪市立賣堀北通四丁目

고무活字 고무活字
僅少한 資本으로 自由히 容易하게 장사가된다
當場에ゴム印名判을 組版하야 即賣可能 到處에서 大好評 大多賣行
고무活字及各種고무印 製造元 吉川商店 大阪市南區鰻谷屋町六八 電話南二〇九番 振替大阪五九一
(商報進呈)

洋裝百貨 豊國商會

一足마다市價一圓의샤프펜실無代進呈

革靴景品附大賣出 (付一타이라)大物實

◎革靴界의大革命◎

青年用 케ㄴ론一靴 鬼三枚底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鬼三枚底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高級 ニキン靴 本年改良 紳士用皮靴 短靴 編上靴

訓練用 國產靴 陸軍省推奬品 學生兼用靴 A 特品上 B 並品

船來紳士靴 紳士用先細型

三個釦紳士用 大流行

學生靴新發賣 セーラー型 女學生用皮靴

注文方法

會社 サービス商會營業部 名古屋市西區新井町三ノ五〇

共學制擴充에當局底意鞏固

地方新設兩高女도 共學條件附認許

義務教育을實施한後에는 初等校에도共學制

저간총독부당국에서는 조선내의 중등학교 교육제도의 일대전환을목표로 녀자중등교육부터 남자중등교의 순서로 일본내지인과 조선인생도의 공학제를 실질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실시하야 전교육령역에잇서서 전반적으로 시행할계획을 하고잇다는것은 본지에이미 보도하엿슴과동시에 문제가문제인만큼 이에대한 사회각방면인사의 의견과 주장을 소개하엿슴에따라 일반교육계와 사회각방면에 큰『센세이슌』을 이르키게되엇다 그런데 그후 본지의책임잇는조사와 총독부최고당국자의 근본내의(內意)를 다저본결과 이공학제실시에대한 당국자의 결의는자못강경할뿐아니라 그실제착수의 일례로 작년중에 설립된 춘천(春川)고등녀학교는 일본내지인자녀와 조선인자녀의 공학제실시를 조건으로 인가하엿다는사실과 김천(金泉)고등녀학교도 종내로 일부고급관리의 자녀라든가 또는특수관계자의 자녀로 한학교에 이삼명또는 사오명의 조선인자녀를 입학식히는 취의(趣意)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에서 일반적 공학제를 실시하고잇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이계획에대하야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의 명언에의하면 공학제의 실시는 종래로는 보통교육학교이외에 실업학교와 전문 대학에서는 이미 실시를 보고잇슴으로 법령의개정이나 형식적 체재를 고치지는안코 이것을 점진적으로 실제상 공학제도로 확충해나갈터인데 이미 그구체화에 로력중이요 한거름더나아가서는 조선인의 초등교육제도에 잇서서도 방금 진행중에잇는 보통학교증설확충계획의 완료와 간이학교(簡易學校)의 대증설확충을 뒤니어 필연적으로 실시를 계획하고잇는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보게되는 날에는 초등교육에잇서서도 단연히공학제를 단행하리라고 명언하고 다시조선어과목의 존폐문제에대하야도 정무총감의 의견으론는 한국민이 수개언어를 배운다는것은 큰불행일뿐아니라 도생활환경도 한가지언어로 통일함을 요구되고잇슴에따라 공학제의 전반적실시를보는후에는 조선어과목은 당연히페지될것이라고하엿다 이와가티 당국의 공학제도실시의확충문제는확실하여 그내용의 전모를 알게되엇는데 이문제는 단순히 교육계의 중대문제가아니라 실로 중대한 사회문제로서 민간의반대 여론이 노픔에도불구하고 당국이 압흐로 과연어떤태도를 가지고 나갈지 매우주목되는문제로되여잇다

"共學制完成後는 朝鮮語課目은當然消滅"

"當局最高政策이니實現圖謀而已"

政務總監과一問一答

공학문제에대한 총독부당국의게획과 의향은 전긔한바와 갓거니와 이문제에대한 최고당국자의 의견과태도를 명확히하다진하고저 긔자는 십일오후두시에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을 회견하야 문답을한바를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긔자ー최근 공학문제에대한 시비가 만히론의되는데 이문제를 총감은 어떠케생각하오

총감ー공학은 필요하다 현재도 실업학교 전문학교와 대학은 실시중이요 또중학과 여학교 등은소학교에서 일부는 실시하고잇다

긔자ー금후공학제도를 더확충한다니 사실이며 또한다면 어떤방법으로 하시려하오

총감ー물론 확충한다 아주긴급한문제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법령을개정하거나 형식을 갓추어 실시하지는안코 실질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하려한다 즉여자학교로부터 남자중등학교에 밋게하야 조선에의무교육만 실시되면 초등학교도 전부실시할터이다 그리하야 전교육령역에 공학제도가 실시된후에 비로소 법령기타의형식을 가추어가지고 제도의 합리화를할터이다

긔자ー공학제도가 실시되면 조선어과목은 어떠케하오

총감ー공학이 전부실시된후에는 조선어과목은 폐지한다 아동에게 두세가지말을 배호도록 강제하는것은 무리하다 또조선인의 생활환경도 점차 조선말의필요를 늣기지안케 될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는공학제의 실시를 확충하려는때이니 곳폐지치는 안흘나 장래에는 당연히 페지될것이다

긔자ー공학이라는말이 벌서 조선어 폐지를 전제한말이 아닌가

긔자ー조선어를 폐지한다는것은 력사적으로보아 불가능한것은 물론 생활상에잇서서도 곤란을 늣기게될터이요 또한민족의력사가길흔 언어가 사실상에잇서 사용하지못하게될 경우가잇슬가요

총감ー학교교육에서 조선어를폐지한다고 조선말이 소멸되는 것은안흘것이다 물론대부분이 국어를 사용하게될것은 사실이다 그럼으로 지금도 보통학교부터 학교에서는 조선말을 못쓰게하야 국어의보급을 식히고잇다

긔자ー그래도 민간에는 반대적여론이 놉흔데요

총감ー반대하는 사람은 감정상의 동긔밧게 업슬것이다 당국의 최고정책에 의하야 오즉 실현을 도모할뿐이다

갑흠술안넌다고 利鎌으로四人殺傷

一人은卽死一人은瀕死重傷

立會檢事는無期懲役求刑

남에게 술을 바더주고 그갑흘 술을 대지 안는다고 분개하야 낫(鎌)으로 사람을 네명이나살상하엿다는 강원도정선군 동면몰운리(旌旋郡東面沒雲里) 거주 광부 김만복(金萬福)(三二)에 관한 살인미수사건은 십일 오후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이집원(伊集院)재판장 전중(田中)검사의 담임으로 공판이잇섯는데 검사는피고에대하야 무긔징역(無期懲役)의 구형이 잇섯다 판결은 오는십팔일에 언도하기로 되엿다 대낫에 사람을네명이나살상한경과를 드르면 이러하다 피고는 본적지인 경북영일군송라면상송리(迎日郡松羅面上松里)로부터 강원도에가서광부 노릇을하고잇든중 금년칠월 이십일낫에정선군동면 건천리(乾川里)금광에취직하려 갓다가 마츰그동리정리도(鄭利道)음식점에서 쉬고잇든중 마츰그음식점에 와서 잇든 강원도 린제군 린제면상동리(麟蹄郡上東里)사는 광부림동규(林東奎)(二七)에게 소주를바더주엇다 그런데그곳 습관으로는 더먹은 뒤에는반드시 그자리에 그갑흘술을 내여야 되는법인데 마츰 그술집이웃방에 광주가와서 잇기때문에 좀 거북하니 잇다가 점심때에 술을바더주마하고 그자리를 물러나가려한즉 그만 분개하야 맥주병으로 림동규를 구타하엿든바 마즌 림동규는 겁이나서 도주하는것을 낫을들고 뒤를 쪼처가다시 그러한 광경을보고 무서워서 그음식점 후원에 숨어잇든 그고을 림계면송계리(臨溪面松溪里)사는 김경업(金敬業)(二三)에게도 역시낫으로 억개를찔럿스나 도주해기때문에 목숨은 구조되엿스며 또다시 그곳금광사무소로 달려가서 피신하고잇는 김경업의 안해리도화(李桃花)(二二)의목을찔러서 중상을 입히고 또다시 그사무소에 피해잇든 김재희(金在熙)(五八)에게 덤벼드러 목과 기타전신 십수개처를 낫으로 찔러서 즉사케하엿다한다

그런데 피고는 재판장이 무슨까닭으로 상관업는 다른 세사람까지 찔럿느냐고 무른데 그당시 이십여일전에 광산에서 일을잘못한다는 까닭으로 해고(解雇)를 당하고 또한 사오일이나 먹지 못하엿슴에 그러는 바로 화가잇서 자긔도 자살할 목적을 하엿섯는데 그순간부터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부지중간에 함부로 닥치는대로 아무상관업는 사람들까지 찔른것이라고 대답하엿다

盜賊질로蓄財코 "改心前夜"에被捉

正當한生業으로轉向하고저 行商用蓄音機마즈막훔치다

십일오전열시경에 시내종로(鍾路)이정목 로상에서 축음기 한개와 『레코ー드』를다섯장을 들고가는 수상한 남자한명을 소관종로서원이 인치하야다가 취조한결과 그는 시내관동(館洞)사는 심명섭(沈明燮)(三三)으로서 금년봄부터 도적질을 시작하엿는데 물건을 절취하면 전당포에잡히다 들킬가두려워서 언제던지 현금만을 도적하야 그동안 도적한돈사백여원을 저축하야가지고 이제부터는 도적질을 고만두고 그돈을자본으로 싀골로 단이면서 행상이나하려고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행상하는데 가지고단일 축음기한개와 소리판열다섯장을 훔치가지고 도적의길을 하직하려다가 고만 한발입서서 그와가티체포된것이 판명되엿다

怪賊이切取 動力線五百七十米

◇中林洞附近에서

지난구월 이십칠일로부터 이달칠일까지 사이에 부내 중림동(中林洞)백오십번지 압부근에잇는 동력전선(動力電線)시가이오백칠십『메ー돌』에 그가격일백이십구원어치를 어떤자의 소위인지 교묘하게 끈허간것을 지난팔일에야 순시하든 경전(京電)직공이 발견하고 놀래여 본사에 급보하는한편 이사실을 소관서대문서(西大門署)에 계출하야 방금 그범인을 탐방으로엄사중인데 인가드문 지방도 안이요 통행인이 빈번한 경성한복판에서 대담하게 전주를타고 올라가서 동력선을 끈허간일은 근래에 드문일이라한다

釜山署員上京 青年二名檢擧

구일오전 경남부산(釜山)경찰서 고등계형사두명이 부내종로경찰서에 나타나서 동고등계형사의 응원을어더 부내효자동(孝子洞)방면을 상상치 수색한결과 효자동×번지에서 김(金)모와 리(李)모 두청년을검거하야 구일밤 열시오십오분차로 부산으로압송하엿는데 그들은 방금부산서에서 취조중인 모사건의 련루자이라한다

일 동안 밤마다 고향에잇는 어머니로부터 불효한 자식이라는 책망을하는 꿈을 꾸고 잇서서

二大히트映畵!!! 무병마무러안울수업시나스냥 푸데데리마치 主演 復活 키워터作品 參秋 國成社 第大名篇!期待하시압 十月十四日封切

자 몃십원의 근소한 자본으로 자유행상을 해보앗스나 그도마음대로 잘안되여 세상을 비관하고 투강자살한 청년이잇다 십일오전 두시경 영등포(永登浦)방면으로부터 시내쪽으로 드러오든 통행인이 한강(漢江)인도교우에 양복, 자전거, 구두, 유서(遺書) 세통등 다수한물품이 노혀잇는것을 발견하고 소관룡산서(龍山署)에 계출하여 그서원이 달려가 조사한결과 그는부내서대문정(西大門町)일번지 약종상 정진수(鄭鎭洙)의 차남 정원진(鄭元鎭)(二三)이가 투강자살한것으로 판명되엿는데 동인은 어려서 부터 부내재동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그후 본정(本町)일정목 부내(北內)문방구점에서 약이년간 점원으로 잇는동안에 선린상업(善隣商業) 야학부에 이년 동안을 다니다가 갑작이 전긔 부내상점에서 해고를 당하게되자 그후 행상을 시작하여 근소한 수입으로 그날그날 입에 풀칠을하여 식구의 생활을 단신으로 보장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쌀갑이 고등한데다가 일반물가가비싸저서 도저히 자긔혼자서 버러드리는 돈으로는 가족이 생활해나갈 도리가 업스므로 월여를 두고 고민의날을 보내다가 갈사록 더해가는 생활고와 아울러 정신의 고통에 견듸다못해서 십일새벽에 집안사람들이 끈하게잠든 틈을타서자전거로 한강에 달려가 마츰내 투신자살을하고 만것인데 시체는 아직건지지 못하엿다한다

所得稅營業稅 前年보다激增

府內景氣上昇圖表

경기의바로메ー터ー라고볼수잇는 영업세(營業稅)와 소득세(所得稅)의 세액을 통하야 타진한 작금의경성부내의 경긔의 활황은 어떠한가? 도표에남긴 경기의상승선은 여하간에 활기를띄고잇다

즉 전년도의 부내영업세의납입은 칠천구백륙십칠명에 오십일만이천백구십륙원 이엿는데 금년도에와서는 액수에 잇서서팔만칠천삼백칠십삼원 인수에 잇서서 이백륙십사명이 각각증가하야 오십구만구천오백륙십구원 인수 팔천이백삼십일원이다 즉 인수에 잇서서삼『퍼ー센트』액수에 잇서십칠『퍼ー센트』의 증가다 영세종목 삼십이종목중에서도 가장 활기를 띈것은 금지금의매매와 요리업방면으로서 아직도 가지아니한 광산경기의 여음을 울리고잇다 또한 소득세를 통하야보면 처음으로 시작한작년도의 반년분이 이만오천이백십구명에 칠십륙만오백오원이든것이 금년도는 인수에 잇서서 약삼『퍼ー센트』강인 팔백오십이명이 증가하야 이만륙천칠십일명이오 액수는 일백칠십오만륙천칠백오십이원이다 이것을 전년도반년분의 이배에비하면 삼만오천칠백사십이원즉 이『퍼ー센트』강의 증가다 그원인은 대체로 전기 영업세증가의 원인과 비슷하나 륙히쌀갑시 작년보다 이활가량 올라서 이로인하야 지주 미곡상의 수익이 증가된것도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 여하간수짜에나타난 범위에서는 이러한 활황은 대정십이년이래의 처음현상이라고한다

仁川署檢擧中의 赤色讀書會事件

漸次擴大될듯

【仁川】인천서에서는 지난구월 이십일경에 시외 장의리(長意里)박인철(朴仁喆)(二三)외에 수명을 검거하고 엄중취조중이든바 근자에이르러는 『인테리』급의 청년수명과 『인테리』급의 청년수명을 검거하고 엄중취조중이다 증거로는 『영국의로동운동』이라는서적외에 삼십여권을 압수하고 국비밀리에 취조중이라는데 사건은 적색독서회사건으로 보인다한다

少年團窃盜

십일오후네시경에 시내종로서(鍾路署)사법계형사에게 시내서대문정 (西大門町)일정목 일백구십팔번지 유원춘(柳元春)(一五)과 김승안(金承安)(一六)박봉진(朴鳳鎭)(一六)의 삼인단 소년절도단이 체포되엿든데 그들은 지난달 중순경에 시내태평통 일정목 사십이번지무정(武井)방외 수처에서 백금반지등 귀금속수점을 절취한외에 시내각처에서 수십건의 절도를 범행한것을 자백하엿는데 우선나타난 피해액이 약칠백여원에 달하는데 아직도 여죄가 만흔듯하야 엄중히 계속취조중이다

天勝一行來京

마술(魔術)흥행으로 유명한 천승(天勝)일행이 경성에 와서 십일부터 륙일간 경성극장(京城劇場)에서 흥행을 하게되엇다

失職青年投江

一年間에花鬪鬪箋 廿六萬벌消費

京畿道管內의統計

아직도 항간에는 마작(麻雀) 루전(鬪錢)골패(骨牌)화투(花鬪)등에의한 도박사건이 빈번함에 비추어 경긔도 경찰부에서는형사(刑事)경찰상 필요를 늣기고 그관내 각도시와 군부의 상점에서 『매매되든 도박용구의 수효를 조사중이든바 이자음 그수자가 완전히 모혀젓는데 작년칠월일일부터 금년유월삼십일까지 매매된 일년동안의 총계에의하면 화투가 제일위로 이십일만팔천륙십일목이고 투전이 사만오천사십이벌, 마작이사백오십일대 골패가 삼백륙십이벌의 순서인데 지방에서는 화투투전이 만히팔리는동시 마작골패등은전부 경성, 인천등도시에서만 매매되엿슴으로 도박에도 도시와 지방과의 계급성이 나타나는것으로서 자미스러운대조를보이고잇다

運動競技

徐廷權歸國第一戰에 布哇選手와對戰

來廿一日밤, 京城運動場

世界拳鬪級第六位라는榮譽를 짐머지고도라온 徐廷權君의 歡迎拳鬪戰은 滿天下拳鬪界의待望속에來二十一日午后七時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에서열리게되엿다 徐君의相對者로는 上海의朴濟健君이 選出되엿섯스나 不得已한事情으로參加치못하게되여 主催側인東洋拳鬪會新譜黃乙秀氏가 數日前渡東하야 各方으로 物色中이든바 徐君의好敵手로 東京에滯留中인 全布哇輕量級選手權保持者(姓名電文未詳)와 契約이成立되엿다는電報를바든 東洋拳鬪會에서는 即時萬般準備에着手하엿다 이로서徐君이國際舞臺에서發揮한快技를 故國의링우에서發揮할것으로 이날은손곱아기다리게한다

普通學校 女子陸上 申請明日限

同德女子高等普通學校主催의 第一回普通學校女子陸上競技大會는 來二十日午前十時부터 昌信洞同校庭에서行할터인바 申請期는明十二日까지로 締切하엿는데 이나、採點方法=普通學校에一、二、三等에 點을주어 總點으로 決定함

서울陸聯主催의 斷郊競走 十一月九日開催

서울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一回크로ー스컨튜리ー(斷郊競走)는來十一月九日(土)午後二時부터 培材高普運動場을 出發點으로 擧行할터이라는데 諸般規定과走路는 다음과갓다

◇走路=培材高普…徽文高普前…西大門郵便局前…興中…女子神學校前…金華莊…에기駿…梨專…延專…에기駿…鷺梁에 드러서 培材高普까지 往路와同一코ー스

◇競技規定

(1)團體競技(中學校)

가、中學校에限하며 一校出場選手는十人以上으로하되 各校先着十人마 採點하야 最少得點校를 優勝校로定함

十、得點方法=着順에二、一、着順二、二、着二、一點을 附與함 (例…一着一點、十着十點、百着百點)

但競技途中 棄權選手에게는 出場選手數(個人、團體出場總數)의點을 附與함

(2)個人競技(一般及中學生)

團體競技及個人競技參加選手를 同時에 出發시키여 所要時間을 通過한 先着六着까지를(團體、個人을不問)個人競技入賞者로 定하고 着順에依하야 中學校만 採點함

一、申請期日十一月五日午後四時

一、申請所 朝鮮中央日報體育部

一、參加金 個人競技…一人二十錢 團體競技一人二十錢

럭비戰評(二)

培材…養正 京師…京商

李鍾琬 記

養正럭비監督

培材로서 第一敗因은 相當한 試合에 經驗이 업는것이다 萬若 試合에對한 經驗이 만엇든들 京師를 問題업시 이엇슬는지도 모른다 京師로서도 前에보든 猛烈한 조금도볼수업것다 다ー만 이만흔 巨大한 體格을 利用하야 試合에 經驗이만엇다는 그點이 試合에 勝利한것갓다 兩者全部가 凡戰으로마치엇다 이라고 말하고십다 特出한 特點이 업는 師로、過程을밟는것갓다 더구나 後半에는 培材로서 風勢의利를 占하고잇섯다 그러나그風勢의利를 利用치못한것이 得點을挽回치못한것이다 前半에六—〇이라는스코어는 絕對로마는스코어가 아니다 前半의 失策을 後半에더구나風勢의 利를 利用하야 挽回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試合全體를 通하야 無意味한 킥으로 始終하엿다 FB로서는 正確하게『럿치』를 식혀야만된다 그리하야 前線에서싸우는『푸레여』로 하여금 泰山의 安慰를 주어야할것이다 前線이 疲勞한것도 不拘하고 後線에서 不正確한 킥으로 全線은無用의 力을 쓰게하야勝敗上으로 不安을 주는것은 중대한缺點이다 그러고탁클이 不正確하다 다른中學팀에서 수업는 巨大한 體格을 所有한 培材로서 利用하야 ーー로 이와가티 培材가 弱하다는것이엿다 全然未知數의 培材가 惡戰을 하리라고 생각한다 京師의勝利가 當然한것이 라고생각한다 培材로서 以上말한데에 同感되는點이잇다면 그 缺點을 極力하야더욱 硏究한다면 다음全日本大會에는 京師를 問題업시 擊退하리라고밋는다 內容으로보아서는 一日의 長이잇는 京師의勝利가 當然한것이 라고생각한다 ーー탁클로 더구나 京師 TB인 本田君이 縱橫無盡으로 活躍하는것을完全히防禦하고 後半에京師의策戰은TB파스戰으로 全力한것을防止하엿다면 後半以上의 成績을내엿스리라고생각한다 이 試合의短點을 말한다면培材의F W의不振으로 敗하엿다고말하고 십다『스크럼』後의『빨업』과『라인』과 密集의『푸오ー』를研究하야주기를바란다 HB連絡의 不完全과 TB線이갈갑고 間隔이멀어서스타트를못하고서서 파스를바든後에야『스타트』를하게되여 敵으로하여금 防禦의機會를 만히주엇다 前半에六ー〇後半에三ー三 結局九ー三으로 培材는스코어로 보아서 惜敗하엿스나 實際試合의 內容으로보아서는 一日의 長이 잇는 京師의勝利가 當然한것이 라고생각한다

龍中럭비再勝

龍中對京中定期럭비ー戰은 十日午後四時三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上野氏審判下에 開始한바 結局十二對三으로 龍中再勝

龍中12(6—6 / 0—3)3京中

今日의運動

◆蹴球=神戰奉納式蹴球第二日 中等部=鐵城農業對崇仁商業(午前八時)、第一高普對大邱啓聖(午前十時)、海州高普對第二高普(正午)、專門部 齒科專門對藥學專門(午後二時)以上全部京城運動場

◆軟式野球=朝鮮神宮軟式野球第一日 平鐵對北朝鮮滿鐵俱(午前九時)、遞信局對江原道聽(午前十一時)、大邱府廳對殖銀俱(午後一時)、貯蓄銀行對朝運京城支店(午後三時)以上 京城運動場

◆運動會=同德女子普通學校 午前九時 郊外延專運動場

漢方大醫淺田宗伯先生直傳
한방대의아사다소학구선생직전
아사다아메 淺田飴
녕해, 거담, 자양, 강장, 감모, 일절, 병후쇠약, 산전산후, 허약자등에 능히현저효한 약입니다 감미방향에 유는부녀최로의 기호에적당함
定價 三十錢 五十錢 二十錢 一圓 二圓
本舖 東京 大阪 堀內伊太郎
各地有名藥店에서販賣함

販賣社員大募集(月收百圓以上確實)
男女 失業者有閑青少年大歡迎
希望者는履歷書切手封入申込하시라 (詳細有無代郵送)
急告
▲商工一般問議歡迎▼
最新型=洋服大投賣(送料)
背廣(色柄自由 三ツ揃一組)=一三圓
オーバ(色柄自由 最高級品)=一〇圓
學生服(黑へサージ メンサージル)〇—七五
求職者는身長、胸圍、腰圍를記하야代金을添付 本社에注文하시오(三日以內에返送)
東亞商工獎勵社
東京市淀橋區柏木五ノ一、一八〇 振替口座東京四一八七二 電話四谷二六八六

祝 慶北水産共進會
浦項運輸株式會社 社長 中谷升三郎
慶北水産會內 慶北飽罐詰製造組合
迎日郡廳
浦項釀造株式會社
東濱町 海月樓
浦項邑 慶北漁業株式會社
金曜會
慶北水産株式會社
大興電氣株式會社 浦項出張所

當選謝禮
旌善郡旌善面協議員 高光國
大山德忠
旌善郡東面協議員 金禮賢

痔疾은 오세로 痔疾藥으로 全國各藥店有함

㊀朝報案內
學生服 散賣가다로구 無料進呈 行商人募集 要至急問議 京城府黃金町二丁目電本四六九番 三好洋服店

當る八日特別大公開 初秋第二彈!連發的に巨豪篇公開 大入滿員御禮奉仕の爲め普通料金 階下席 大人學生卅錢 小學生廿錢 晝夜三回興行(毎日) 第一回連續上映午前十一時半 第二回午後二時 第三回午後六時四十分 第一回第二回は入替ありませぬから晝間は御便利です
新興キネマ太秦時代劇超特作 雜誌『日の出』連載 原作 野村胡堂 脚色 入江一夫 監督 廣瀨五郎 錄音 映音サウンドシステム サウンド版 江戶の坩堝
助演 國德麟、春路讓作、宮川敏子 英國ゴーモンブリティッシュ特作 ヴィクターサヴィル監督 作曲 M、スポリアンスキー 英國第一のプリマドンナ イヴリンレイ 主演 夕暮の歌
コロムビアレコード歌手 コンチタ・スペルヴィア 花咲く頃の カール・エスモンド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特作 原作 陶山鐵 監督 田中重雄 サウンド版 夢の子唄 名子役、市杖美洋子、齋藤達雄主演
永樂町 電本2511 中央館

十月十一日밤부터特別大公開!! 特別料金 階上三十錢均一 階下二十錢 土曜日曜祝祭日은畫夜二回합 낫一時 밤 七時半始映 유나이텟드社超特作全發聲版 大名畵 최프링의 街의등불 全十卷 최리최프링氏自作自演 新界不朽의豪華版 ◇心境映畵의眞隨!哲人최프링氏가가到한感激의人生展詩다!悲哀와가交響하는곳에深遠無限한人間의假惜를보여줄수잇스니巨星의大勇作 유나이텟드社超特作全發聲版 大喜劇 突貫감대 全九卷 監督 에도와드・스타란드氏 主演 에디이칸타氏 大日本教育映畵社特作全發聲版 教育映畵 水兵의어머니 全五卷 主演 島耕二・東勇路・北小路章子・大谷俊夫・村田岩 監督 小笠原明峰氏
黃金町三丁目 電話二四〇 桃花劇場

十二月의 四海公論

巨弾！ 驚異的 巨弾！

"이 筆者의 이 論陣"

修道

先生이 世上雜務를 펼쳐버리고 北漢山에 隱居하시며 內面生活에 깊이 沈潛하고 계시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特히 本誌를 爲하야 敎示하신 修道의 眞髓는 讀者와 가티 本誌의 자랑이다.

李光洙

當來의 文明

哲學者요 또 哲人인 先生이 現代文明을 批評하야 그 進路를 밝힌 近來의 大論策

李載薰

朝鮮經濟의 現狀 米穀

「살림살이」는 朝鮮經濟의 中心問題다. 이 論說은 살음中心으로 한 朝鮮의 現經濟를 如實히 들어 내인 것이요 一郞米穀商人의 打算을 解剖한 것이다.

秉成龍

伊에紛爭은 싸고도는 國際政局動向

金麟伊

正義人道論

現代人의 澆季狀態를 批判하고 權威失墜狀態에 빠진 正義人道를 再檢討한 一世의 大警告文

金海鎭

創作

世界的 提琴家 桂貞植博士의 約婚解消? 事件

海外十二年동안○博士는 마침내 世界的大提琴家로 榮譽를 안고 錦衣還鄕하여다 上陸第一步에 밀처드는 수많은 結婚申請의 속에서 博士는 聚花女學校의 金○○와 正式約婚했스나 그 結末은?

千眼居士

長篇小說 花心

第二回

바다에서 핀 사랑 금희! 금숙 그리고 그 兄弟들의 愛人으로 大學生인 상필은 둘중에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든가?

方仁根

池博士

朴榮濬

史譚 逸史片々

世宗大王까지 나오는 歷史的興味讀物

金東仁

버스콘谷의 悲劇

李哲譯

探偵小說

疑問의 死體 結果와 그 犯人이 누구인가?

元文曉聖師

佛敎의 太陽인 元曉聖師를 評論한 名文

金敬注

修道餘話

文藝 讀本

第三課

田元培

北米學窓 生活의 斷片

北米留學을 하는 者여 읽으라 衆者의 苦學實驗

笑鵬

南松

紅燈哀曲

紅燈下에서 生活하는 女人의 日記

女流鳥人 李貞喜孃故土訪問飛行前會見記

아직도 우리들의 記憶에 새로운 朴敬元 孃의 뒤를 이어 飛行할 일어선 李貞喜孃! 그는 어데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려 하는가?

R記者

樂觀과 悲觀

(讀者 十數人)

京城占景

現代와 歷史

田元培

○○기에 큰 것 신다보素 탕사개 고진은 것 단다보 꿈 義主本資다엿하變은城京 眞의城京닌몰를키로市都 文名한말음람

三大事業

成不蔘

柳光烈

生活偶感

李泰俊

疾眼飛行士 포스트의 慘死

一記者

世界的 大作家 앙리·발뷰쓰와 크랄테運動

D記者

躍進하는 朝鮮文化의 異彩를 찾어 코리아音樂研究所訪問記

K記者

紀行 近畿小脚

崔鳥則

讀者文藝滿載

詩 文藝

族嶺 李瑞海
失題 崔華鳳
해 산 울

千一近吟

世界日誌

大文豪의 逸話集

堂堂 二百餘頁

○高級아ー트寫眞版四頁入
○挿入寫眞 三十餘葉
○表紙三度色刷 圖案界의 權威高一齋伯作

定價 十錢 送料二錢

注文은 振替로、切手도 조흡니다。

半年分 六十錢 一年 一圓

京城府竹添町一丁目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
電話光三三四、二○五九

朝鮮은 論議가 만흔 곳이라
비싸면 비싸서 不平
싸면 싸니까 誤解
그러나、담배한匣 안피신 셈잡고 읽어보시오
實物본담에는 感謝狀을 안보내고 못견된다는 讀者들의 말이 毎日들여옵니다

價格을保障하고 國家補償이急務

法令으로增産만을奬勵함은 農民을생각안는일

特派員 李健赫

紡績은世界一位 輸入三割이棉花

棉花는 生活必需品이오 重要軍需品임에 不拘코 日本內의生産은 極히微微하야 日本國內의 需要거의全部를 海外에求코 잇는現象으로서 日本의棉花輸入額은 昭和九年度에잇서 總輸入額 二十四億圓의三割에 相當한 七億二百萬圓을占하야 斷然第一位에잇다。그리하야 今年九月十五日 米國國勢局 發表에依하면 去七月末로써終한 一九三四―三五年棉花年度의 米棉總輸出總額四百七十九萬俵中 日本이 가저온것이 百五十二萬俵로서 前年度보다 三十二萬俵 減少이나마 第一位이엇다한다

現在 日本의紡績、紡織工業은 維新以來 顯著한 發達을示하야 有力한工場이 大阪과 東京을 中心으로 各地에 大發展中이오 朝鮮內로도 大資本紡績會社가 進出하야 工場을 永登浦 光州 平壤 仁川 大田等各處에 建設코잇는터로서 大正十二年末에 四百四十萬錘이던 日本內地紡績이 今年九月廿一日現在 紡績聯合會調査에 依하면 加盟各社의 備置錘數가 一千一萬七千五百八錘에 達하야 倍以上의 激增이며 確實히 一千萬錘를 突破하야 劃時期的 現象을 呈하얏다。이리하야 日本의紡績은 世界首位를 자랑하던 英國『만체스타』를 斷然 凌駕하야 世界第一位를 獲得하얏는바 英國은 이 紡績策으로서 自國商品保護政策을 取하야 英領印度를 비롯한 自國殖民地의 關稅引上에 依하야 日本綿製品의 輸出을 大彈壓中이오 所謂『심라』會商 日蘭會商等等 高率關稅 設定傾向은 全世界大勢가 되여 『블럭經濟政策』이 加速度로 되어가는 이情勢下에잇서서 棉花의 自作自給을 못하는日本은 여간苦痛이 아니다。

日本內地의 棉花栽培는 濕潤한 氣候關係上 不適하야 大正四年에잇서 作付反別 僅히 二千六百七十九町步 收穫高五百二十四萬斤이란 問題도 안되는 少量인데 그것도 年年退步 減少의 趨勢로서 지금은 그影子를 沒코저 하는터이며 棉花도 害蟲被害에 依하야 그栽培가 不適함으로 氣候風土가 棉花栽培에 適當한 朝鮮에 큰期待를 가지고잇는터이다

一反에男十八人 하로동안의일

이제 棉作이 農家에게 얼마나한 收入을 주는가를 보면 全南農務課 永見技師의 말에 依하면 昭和七年에 잇서 全南에잇서 一反收穫實棉을 百二十五斤으로잡고 實棉 一斤市價를 平均十五錢으로 치면 百二十五斤에는 十八圓七十五錢이 되는데 그中에서 肥料公課로 三圓五十錢을 除하면 十五圓二十五錢이되고 그中에서 勞力으로 七圓二十錢을 減하면 八圓五錢의 實利라한다 勞力을 七圓二十錢으로 잡는 內容은 一反을 耕作하고 收穫하는데 男十八人의 일로 보아(女三人을 男一人으로 換算)一日男 一人의 勞賃을 四十錢으로 치는것인데 男十八人의 勞賃의 根據는 날수로는 씨뿌려 收穫까지 半年이나 걸리나 實際일은 一反棉作에 男十八人이 一日間 일하면 된다는것이다。

그러나 勞賃을 따로 分算치 안코면 棉作一反의收入은 十五圓二十錢이 된다한다。이에 注意할것은 이計算은 가장 反當收穫이 마는 全南의計算이오 一般的의것은 아니다

×

今年의 棉花採算은 陸地棉標準인『스트릭드·밋드링』實棉共販價格에 換算 하면 一等棉은 每斤十八錢臺로 昂騰되야 昨年高價에 達할것갓흠으로 朝鮮內實棉採算을보면 田作과對比上 每斤十錢이 採算點이니가 有利하다고보고잇는모양이다。

棉作奬勵의 難關

棉作奬勵의 큰 難關은 價格(米棉、印棉市勢)變動이 激甚한때문에 農民收入에 脅威를 與코잇는것이니 過去의經驗에 徵하드래도 大正九年과 十年에는 財界變動에伴한 棉業界不況에依하야 棉花價格이 低落되어 被害되어 棉作의利益이 一時에 減少되어 栽培者中에는 棉作을 廢止한일이 잇섯고 大正十三年에는 朝鮮特有의 旱害로 各道 農作物이 모다 減收되엿슴에 不拘코 棉花만을 收되엇고 市勢가 高價이엿든 때문에 棉作栽培者가 續出하얏섯스며 其後昭和四年에는 米棉增收豫想發表로 棉花價格이 暴落되어 過去三十年來 未曾有의 低價를 唱키에 至하얏슴으로 米及繭의 暴落과 相俟하야 農家의 打擊은 深刻하얏섯다 그리하야 過去二十年間 順調發達이던 棉作이 一朝에 頓挫되엿든 일이 잇섯다

이가티 販賣를 目的으로하는 棉作栽培의 價格이 變動이커서는 栽培戶數 百萬戶에 達하는 農家에게 不安이 클지며 農家經濟의 安全을 期할수업는만큼 朝鮮에서 數量만으로의 增産奬勵에 압서 棉花價格安定策을 講究함이 必要하얏이다

×

日本에잇서서의 棉花價格은 全혀米國、印度、埃及等의 經濟狀態에 支配되어 大戰中에는 一斤三十五、六錢의 高價가 잇섯고 멧해前에는 五六錢의低價가잇슨等 高低騰落이 激甚하며 朝鮮에잇서도 日本內地의 棉花市勢를 그대로 갓다가(이것은 共販制度를 말할때에 詳述하겟다)가를 定하는 限 價格을 安定식혀 棉作者로하야곰 安心하고 耕作케하려면 어떠케하면 조흘가? 여러가지 方法이 잇겟스나 棉作奬勵의 根本精神이『棉花增産奬勵의 重要한所以』라하야 政府가 맛당이 棉花價格을 保證할 義務가 잇슬가한다。

그리하야 棉花價格이 低落될境遇에는 一定한 價格의補償을 할必要가 잇는터로 이것은 紡績業者와 何等方法을 講究하면 相當한 良法이 發見될것갓다。實棉 一斤에對하야 十二錢까지의 價格補償을 한다고 假定하고 六億斤의 棉花를 奬勵하라면 一年五百萬圓乃至 一千萬圓만 國庫支出을하면 可能할것인데 問題는 赤字財政인 現今에잇서如斯한 巨金의支出이 難事라겟스나 一方생각을 돌리어 米穀法에 依하야 五千萬圓以上의 國家損失을 하고잇는것이라던가『뿌라질』의 珈琲政策、米國의棉花政策에 徵하던가 國策上 또 國際貸借改善上으로 必要한棉政策을 爲하야 一千萬圓內外의 犧牲을함은 無理한일이아닐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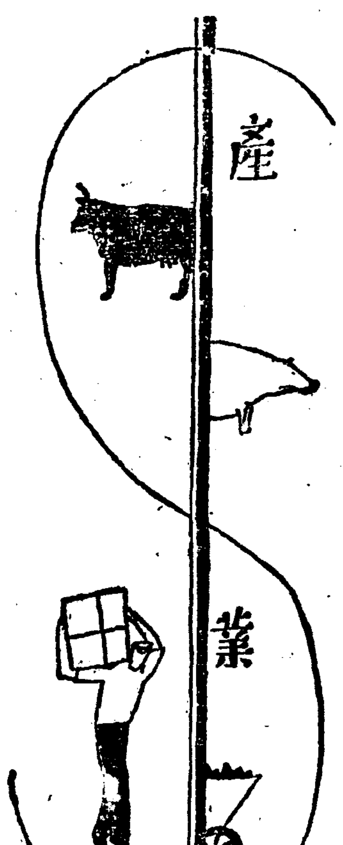
×

이는 朝鮮農民이 棉作者인까닭에 棉花價格補償이라는것이 日本內地에서는 勿論 朝鮮서도 重大視되지안는것이라고 볼수 밧게업다。

이런 價償의方法이어서 法令으로 奬勵만 떠들고 增産을식히는대서야 棉花價格變動으로因한 棉作者인 農家의 致命的損失을 不顧함은 爲政者의 深思할바이라겟다。이에는 總督府財政으로는 바랄수도 업는일이오 朝鮮의 棉花奬勵의 根本義가 日本全土에 亘한 重大事인마큼 政府로서 이價償을 하도록 總督府當局은 勿論 朝鮮全體로서 猛烈한 運動을할 必要의 하나라고할수잇다。數量으로 二億斤을 生産하는 朝鮮의棉作、價格으로(九年中의農産高=總督府調査)二千五百七十萬圓에 達하는 棉作에 對하야 그生産者인 農民에게 損失補償이어서 將次六億斤을 目標로 奬勵하야 他作까지 못하게 하엿다가 米棉慘落等에 遭遇할때는 어찌할 작정인가? 그러지안허도 살기 어려운農村의 致命的打擊을 무엇으로救하겟는가? 今年에 採算이 맛는다고 安心할問題가 아니오 맛당이明日에 備하야할것이다 이는 棉作奬勵로 棉作反額이 늘어갈수록 生産에 從事하는 農家數가 늘어갈수록 더욱더 욱 不況時의 打擊이 커갈것 인즉 採算이 맛는다는 今日에 잇서 미리 對策을 講究하여야할것이다

◇寫眞은鐘紡工場의選棉狀況

産業의本陣을차저서 (十二)



農村好況을利用 農機具購入促進

勤勉力行奬勵、農業技術向上 農林局의 一石二鳥策

米價를 비롯하야 農産價格은 朝鮮內農村에 近時顯著히 彈力性을 加하얏는바 이結果 자칫하면 勤儉勉勵의 美風은 破壞하는 狀況으로 그具體的發現으로는 副業組以의 農村生産高는 急되하고 一面 農村의 알콜類消費는 依然激增의 傾向에잇다 이에總督府農林局에서는 農民으로하야곰 勤勉 力行케하는 手段에對하야 對策을 講究하고잇다 이方法으로 今年度의 農産價格高에依한 農家의 收益增大分을 生産的資金에 充當하야 浪費를 防止할 方針으로 農林局에서는 朝鮮內의 幼稚한 農業技術의 向上도 目標하는 一石二鳥인 優良農機具와 農村副業機械의 購入을 促進하려하고잇다 그리고 購入에는 農民個個의 購入보다 共同購入을 促進할意向이다 農林局에서는 各道 並各地方郡農會 金組等 農業關係諸機關과 提携하야 右에 進出하기로 되엇다

昨年畜産物、加工品 四千萬圓을突破

比前年二百七十萬圓增

昭和九年中 朝鮮의 畜産物及加工品總額은 四千七十六萬五千圓으로 前年보다 二百七十三萬二千圓을 增加하얏는데 이를種類別로보면

牛에 依하는것 二千百四十四萬五千圓、豚九百十八萬七千圓、鷄八百九萬四千圓、馬、山羊、兎犬 其他의것 百八十萬九千圓 加工品價格二十三萬一千圓이다

다음에 畜産物의 主要한것을前年과 比較하면 如左하다

▲牛肉 數量二千七百三十三萬九千瓩價格千八百十六萬六千圓으로 前年에比하야數量으로는 六萬九千瓩減이나價格은 十四萬七千圓增加

▲豚肉 數量千八百八十六萬八千瓩、價格八百九十一萬二千圓으로 前年에比하야 數量에잇서서는 二百八十四萬四千瓩、價格으로 百三十五萬一千圓增加

▲鷄卵 二億二千七百四十一萬五千顆四百八十六萬六千圓으로 前年에 比하야二百四十三萬四千顆二十八萬六千圓의增加

▲鷄肉 四百六十四萬五千瓩 三百二十一萬八千圓으로 前年에 比하야 二十九萬九千瓩五十七萬六千圓의增加

▲牛皮 三百七十九萬〇二百十一萬六千圓으로 前年에比하야 五十二萬三千〇十四萬四千圓의減少

尙州米收穫高

【尙州】慶北尙州郡下의 今年度米收穫豫想高는 一八六八八一石이라하며 昨年度에 比하면〇、三三割이增加하리라는바 昨年度에는 空前의水害로 因하야 收穫이 減少

南浦서上海에 苹果十萬箱

朝郵서도運送에腐心

鎭南浦積黃州鎭南浦苹果의 上海輸出은 今春來 兩地取扱業者의 現場視察의 往來에 刺戟된것과 關東州의 苹果不作等의 關係로 輸出商談이 激增하얏는데 一方 日中關係의 好轉과 環境의 急轉도 도와 今年은約十萬箱餘의 輸出을 볼모양이다 그런데 同地의 上海輸出이十萬箱을 超過함은 이것이 最高의 新記錄으로 前年度의 輸出實績은 四萬箱强이다 이로 이 一手輸送契約을 하고잇는 朝郵에서는 同社上海線을 十月부터 十二月末까지의 三個月間 北朝鮮 寄港을 中止하고 釜山에서 上海에 直行식히는外 北中線을 同三個月間 靑島로부터 上海까지 延長하야 臨時寄港식히기로 決定하얏다

今年度에는 旱害로 二一付된 水陸畓이 成績이 良好하야 百餘町步나 作付치못하엿스나作 實收穫高가增加할이라고한다

朝鮮苹果大好評 輸移出躍進刮目

移出만도萬噸에到達

朝鮮産 苹果의 日本內地進出은 活況을呈한바 東北地方의苹果가 數年來 繼續凶作이고데 今年은 豊作을傳하게되야 朝鮮內의苹果進出은 初期以來 悲觀되는데 實績이 意外로 好轉하야 今年度의 責任輸送、鐵道取扱移出 六千噸은 十月初에 벌서 三千噸을 突破하얏다 이모양으로 나가면 今年의 日本內地移出은 八千噸乃至一萬噸에 達할것이라한다 一方 海外輸出도 鎭南浦 黃州地方의 平南苹果 進出이 顯著하야 歐洲 南洋等地에 特히 出荷增加되고잇다 그러고 苹果輸移出에잇서서는 日本內地서는 大阪箱 六〇乃至八〇個入을 需要하고 輸出에잇서서 一二〇個前後가 要求되는 狀況임으로 苹果의 輸出은 倂行進展될것으로 期待된다고한다

扶餘棉花共販開始

【扶餘】扶餘郡에서는 郡內五個販賣所에서 棉花共販을開始한바 今年은昨年보다 그成績이良好하야 扶餘販賣所에서만 지난七日 販賣된것이 一萬七千斤에 達하는데 今年 豫定斤數는 前年보다 二萬斤增인 三十四萬斤이라하며 郡內共販 日割과 價格은 다음과갓다한다

▲場所及時日 十二日 鴻山 十月四日 恩山 十月三日 石城 十月五日 林川 十七日

▲價格 一等 十七錢二厘 二等 十六錢二厘 三等 十四錢四厘 四等 十一錢七厘 五等 八錢二厘

水産業者의戶數

一五五、四六一戶로서 百戶에三·九戶의比例

總督府調査=昭和九年末現在의朝鮮內水産業戶數는 日本內地人四二九五戶、外國人五戶、朝鮮人一五一、一六一戶、合計一五五、四六一戶로 現在總戶數百戶에 對하야 三、九戶에 該當하며 이를 業態別로보면 漁撈는 一一四、五九〇戶로 全體의 七十三%餘、養殖業이 三一、二一一戶、製造業一〇、六六〇戶로 되어잇는데 此養殖業의 八割四分은 全南에 分布되어잇다 從業者는 漁撈三三四、七七一人으로 全體의 六十九%를 占하고 養殖業七六、六六三人、製造業二七、六四九人 合計四三九、〇八三人인데 그中 一三一、七三七人은 女子이다

對比島棉製品輸出 紳士協定案成立

【東京電話聯合】比島市場의 日米棉製品輸出調整交涉은 今夏以來 華盛頓에서 齋藤大使와 米國國務省當局과의 間에 繼續中이든바 日米紳士協定의 形式으로 成案을 어덧슴으로 近近 華盛頓에서 米國側에서 一方的으로 聲明하야 獨立後 比島의 日米兩國輸出綿布의 協調를 宣明하기로되엇다 그리고 紳士協定의 內容에 對해서는 目下 嚴秘에 附하고잇스나 一、比島市場에 輸出되는 日米兩國綿布를 均等化하고 一、協定의 有効期間을 二個年으로한듯한데 如斯히 比島聯邦이 將來 取할지도 모르는 그他 制限手段에 對하야서도 米國政府는 善意로 考慮할것으로 約束하는 模樣으로 그內容은注目된다

九月中移出牛 九千四百頭

比前年千九十三頭增

九月中의 移出牛總數는 九千四百五頭로 前年同期보다 千百九十三頭增의 盛況을 呈하얏다 各港別은 如左하다

▲仁川 一、一六九頭
▲釜山 四、八二九頭
▲鎭南浦 一、四三一頭
▲城津 九六一頭

歐洲政局不安으로 滿洲小麥市場活況

【新京八日發聯合】伊、에開戰에 端을 發한歐洲政局의 變動에伴하야 滿洲國內 小麥市場은 자못 活況을 呈하야 從來 南滿方面은 大連經由의 歐米品으로 占領되엇섯스나 昨今은北滿商品이 盛히 輸出되어 歐米商品驅逐의 形勢를 示하고잇다 右는 雙方이 모다 一個月前에 比하야 一袋三十錢餘上騰하얏스나 最近의市勢는 歐米物三圓五、六十錢에 對하야 北滿物 三圓五十錢前後로 恒常 五、六錢가량 低價이기때문이다

"朝鮮財政及金融"

廿五年間變遷回顧

⑥……林財務局長 談

【貿易】 朝鮮의 貿易은 倂合後 諸般의 施設이 効果를 나타내어 産物의 品質이 改良되고 生産이 增加되어 鐵道의 敷設、道路、港灣의 修築、沿岸航路의 開發等交通機關의 發達、金融機關의 整備並 關稅政策과 相俟하야 漸次 面目이 새롭게되고 特히 歐洲大戰의 影響을바다 日本內地 滿洲其他 中國等의 物資需要가 旺盛하게되엇슬뿐아니라 이로 製造工業勃興의 機運을 促進하야 其結果 輸移出에잇서 農産品、水産物、鑛産品의 增進은 勿論 새로 工産品을 加하게되엇다 또는 輸移入에잇서서는 富力의 增進、民度의向上에 伴하야 各種生計用品의 需要漸增을 招來하고 또 一面資本移入에 基한 事業界의 進展에 因하야 各種企業材料及原料物資의 輸移入이 長足의 進步를보게되엇다 이제 이를 具體的으로 數字로서 示하면 倂合當初 即 明治四十三年의 數字는 輸移出一千九百萬圓、輸移入三千九百萬圓、合計五千九百萬圓을 算함에 不過하엿스나 大正二年에는 輸移出三千五百萬圓、輸移入六千三百萬圓、合計九千八百萬圓에 達하고 다시 歐洲大戰에 際會함에 及하야 一般經濟界空前의 膨脹에 伴하야 大正八年에는 一躍 輸移出二億二千百萬圓、輸移入二億八千三百萬圓、合計五億五百萬圓의 巨額에 達하얏다 그런데 翌大正九年에는 戰後不景氣의 襲來에 因하야 前年에 比하야 輸移出入이 모다 不振에 陷入하얏다 其後 財界의恐慌 昭和二年의金融恐慌等 屢屢 不祥事에 遭遇하면서도 朝鮮産業은 極히順調로 推移하고 또 一面에잇서서는 大正九年의 關稅改正에 伴하야 滿洲及 日本內地間 發着貨物의 一部가 朝鮮에서 通關手續을하게되고 또 大正十二年移入稅의 大部分 撤廢等의 好影響을바다 大正十年以來 逐年 增進의 一途를거러 昭和元年에는 이미 輸移出 三億六千二百萬圓 輸移入三億七千二百萬圓、合計七億三千五百萬圓의 膨脹을 示하고 다시 昭和三年에 이르러서는 輸移出入總額 七億七千九百萬圓으로 算하야 明治四十三年에 比하면 百二十割、戰時好景氣時代인 大正八年에 比하면 五割四分의 增進을 보앗다 그런데 同年來의 內外 事情의 惡化와 物價의 崩落은 翌四年來의 貿易에 反映하야 漸次 不振하게되어 同六年에 至하야 드듸여 輸移出入總額 五億三千二百萬圓으로 激落하야 九年前의 大正十年에 比肩하게되엇다 그런데 昭和七年以來 對外的으로는 圓爲替의 低落과 滿洲國의 出現에 依하야 對內的으로는 農山漁村의 振興及 穀價의 上昇에 因한 購買力의 增進 各種事業의 勃興과 勞働需要의 增加等 産業經濟의 各部門에 亘하야 모다 好調를 示한 結果 다시 年來의 增加 趨勢에 回復하야 昨九年에는 輸移出入總額 實로 九億八千四百萬圓에 達하야 二十五年間의 最高記錄을 示하얏다 그리고 다시 二十五年以來의 輸移出貿易과 輸移入貿易으로 分하야 그 推移를 보면 輸移出貿易은 이를 輸移入貿易에 比하야 그增進率이 一層 顯著한바가 잇다 即 昭和九年의 輸移入額은 五億一千九百萬圓으로 이를 明治四十三年의 三千九百萬圓에 比하면 十三倍의 增加에 不過하나 輸移出貿易은 明治四十三年의 一千九百萬圓에서 昭和九年의 四億六千五百萬圓으로 되어 實로 二十三倍餘의 增加에 該當하고 其輸移入額에 對한 比는 明治四十三年의 五割에서 漸次增進하야 昭和九年에는 約九割을 占하고 特히 大正十三、四年의 兩年에잇서서는 各히 出超를 示하얏다 이는 時局의 影響을 바듬이 主로 朝鮮産業의 發展을 示現하는것이라할것이다 (끗)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九五三三	江原金化郡岐城面	九月二十三日	咸州郡興南邑 朝鮮窒素肥料株式會社
一一二三七	同	同	同
一一七七四	全北茂朱郡赤裳面	二十五日	益山郡黃登里邑 代表者 孫均王 / 同 金堤郡白鷗面 金秉化 / 元山府海岸通 林宗桓 / 扶餘郡石城面 兒島重太郎 / 大田郡大田邑 李廷憲 / 金黃龍
一二〇五二	黃海遂安郡泉谷面 梧洞面	同	大同郡南兄弟山面 代表者 吳益根
一二〇〇三	京畿安城郡元谷面 陽城面	同二十六日	京城府竹添町 李根碗 / 平壤府大祭里 安永鎬
			仁川府山手町 後藤 連平

◇共同鑛業代表者改定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二一〇四	平北楚山郡江面	九月十六日	代表者를裵利壤으로 改定

◇鑛業代理人屆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鑛業權者	事項
八三七三	咸南安邊郡衛益面	坂井 清治	高城郡[illegible]을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一日屆出
一〇三七二	江原洪川郡南面 西面	三菱鑛業株式會社	洪川郡南面[illegible]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二日屆出
一一六〇一	全南和順郡[illegible]陽面 春陽面	岡本 元佑	和順郡[illegible]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四日屆出
七三三八	慶北高靈郡雙林面	榮 喜貫	京城府[illegible]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四日屆出
一一二〇三	慶南陜川郡冶爐面 慶北高靈郡雙林面	同	同
三五八五	忠北堤川郡德山面	牧山 武文	榮州郡[illegible]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五日屆出
一二〇二五	平南平原郡東岩面 兩花面 順安面	淺野總一郎	平原郡順安面甲斐精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五日屆出
一二二六四 一二三七 五二六二 [illegible]	平南平原郡東岩面 兩花面 / 同順安面 / 同公德面 順安面 / 同東岩面 順安面	同	鑛業代理人中島入郎兵衛를解任하고平原郡順安面甲斐精一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十五日屆出
三一〇〇 一二一〇九	全北茂朱郡安城面 赤裳面	金 寅洙	茂朱郡安城面[illegible]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六日屆出
一二二〇九	咸南安邊郡新茅面	長 島	安邊郡新茅面[illegible]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六日屆出
一一八九〇	慶北義城郡玉山面	鄭 華基	義城郡玉山面酒井留三郎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六日屆出
七九九八	平北寧邊郡泰平面	合資會社寧邊鑛山	寧邊郡泰平面佐藤信重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七日屆出
一一〇七八	京畿楊平郡靑雲面 丹月面	梅田 スエ	鑛業代理人秋岡逸雄을解任하고楊平郡靑雲面岡田智照를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八日屆出
一一一〇五	咸南洪原郡州翼面 龍源面	裵 基郁	洪原郡州翼面裵基遠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八日屆出
七四四一	平北熙川郡西面	橋元 文治	寧邊郡泰平面佐藤信重을鑛業代理人으로選定한旨昭和十年九月十九日屆出

火賊 林巨正 (101)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五의十一

건ㄴ방에서 상노아이들 코고는소리가 나다마다할뿐이고 온 집안이 조용할때 큰집과 동래하는 일각문을 요란하게 열어저치는 소리가 나며 곳 뒤미처서

『천왕동아 자느냐』

한온이의 술취한 말소리가낫다 황뎐왕동이는 이때것 자지 안코 벽에 기대어 안저잇섯스나 신발소리로 꺽정이가 오지 안는것을 알고 비위가 틀려서 자는체하고 가만이잇섯다 한온이가 방아프로 갓가이 오면서

『불을 켜노쿠 자느냐』

하고 소리치는데 불끄고자든 건ㄴ방의 상노아이들이 일어나 마루로 나와다

『손님 자리를 깔어드렷느냐』

『손님이 주무신체 오래냐』

상노아이들을 보고 말을 못고

『이자식 잠이 깨 기피 들엇구나』

『네가 길을와서 곤한게다』

황뎐왕동이게 대고 혼자말을 짓거린뒤 한온이가 일각문쪽으로 돌우갈때 방안의 황뎐왕동이가 갑작이 한온이를 불러드릴생각이 나서

『어른 주무시는 방아페 와서 긔탄업시 떠드는 자식이 누구냐』

하고 소리를 치며 방압문을 열고 내다보앗다 황뎐왕동이는 서사나 상노아이들에게 캐어물어보랴든것을 한온이에게서 파내어들어보리라고 생각한것이엇다 한온이가 들어서서 황뎐왕동이를 바라보며

『저자식 깨엇네』

말하고 마루아프로 와서 손에든 초롱을 상노아이에게 내맛기고 방으로 들어왓다

『어른 들어오시는데 일어나지두안느냐 버릇업는 자식이로군』

『장승처럼 벗퇴구섯지말구 어서 안저라』

『너안진자리를 비켜다우 가서 안질테니』

『내여페 안주시프냐 자이리와 안저라』

황뎐왕동이가 펼쳐잇는 이불자락을 밀치고 요우에 한온이를 안께하얏다

『내가 오늘밤에 술을 만히먹엇다』

『배웅술이 만히먹어야 서너잔 먹엇겟지』

『서너잔 열곱절 더먹엇다 이자식아』

『거짓말말아 네가 상시잔술을 먹으면 다컷게』

『이놈 버릇업는소리말아』

『어린속에 점잔은것이 들어가서 눈이 뒤지펴겟구나 누구더러 이놈이라너』

『너더러 이놈이랫다 뻔한번잇구 눈물을 찔금찔금 흘리는 못생긴 너더러 이놈이랫다』

『실업슨말 고만두세 내가 자네에게 정당이 물어볼말이잇네』

『선생님말을 물어보구시프냐』

『그래』

『선생님은 기생방에 끌아떨어지셧다 술을 배운 제자가번고를 두번세번 하두룩취햇슬젼 술을가르친 선생은알쪼아나냐 너들의 대장이내술선생이야 너 아니』

『내가 자네게 물어볼말은 달은말일세』

『달은말은 무슨말이냐』

『우리 대장이란이가 서울서하는일이 무언가』

『술장바드면 술먹구 밥상바드면 밥먹구 그러치』

『그동안 안해 셋이 생겻는데 중신은 다자네가 햇다데 그려』

한온이가 물그럼이 황뎐왕동이를 보면서

『그런말 뉘게 들엇늬』

하고 물엇다

『광복산잇는 우리들두 귀가 뭇첫일세 그런말두 못듯겟나』

『풍설이다 그따위 풍설을 듯구온까닭에 네가 선생님께 맘을 막하구 내게 끌부림을햇구나』

『풍설이라니 헛말이란말인가』

『그러치 똑똑한사람이 왜 헛말을 고지듯는단말이냐』

『남성밋 박씨、동소문안 원씨 김씨 그것들은 다 무언가』

『그것들이 무언지 나두 몰으겟다』

『박씨는 낙태한뒤 성치못하구 원씨는 언문책으로 세월을보내구 김씨가 제일 고입을맛는것까지 다듯잇네』

『다듯주 무얼 못듯냐 내가 지금 정신이 들낙날낙한다 내일 이애기하자』

『이사람 자네가 나를 친구루 알거든 내말한마듸만 대답해 주게 그세기집이 다 첩이아니구 본가집이라구한다니 그것이 참말인가아닌가』

『본기집아닌것이 본기집이라구하면 본기집이 되나 그런건 못드는사람이 소견이업지 그런것들이 다 본마누라 노릇을 하려구 한대두 너의 누님을 쪼처내구 들어안진 못할테니 념려말아 허허허』

『네가 너의 누님대신 바아지를 글그려왓구나 허허허』

『웃지말게 속상하네』

『앗다 이사람아 인생백년에 웃구지내는날이 며칠이나 되겟나』

한온이가 황뎐왕동이의 억개를 치고『바나마 늙겟스니』노래를 내노키시작하얏다